



# 부상 긴 터널 지나 이젠 '진짜 도전'

이정후·배지환 나란히 개막전 로스터 합류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피츠버그 배지환

## 데뷔전서 122구 역투 신인 정현우 '괴력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투수를 관리하는 팀이다.

여간해서는 연투를 피하고, 불펜 투수의 멀티 이닝(1이닝 초과 투구)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고졸 신인 정현우(18사진)의 프로 데뷔전 122구 역투가 더욱 놀라게 느껴진다.

정현우는 2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방문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 5이닝 8피안타 7볼넷 4탈삼진 6실점(4자책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5이닝 아웃카운트 15개를 잡느라 필요했던 투구 수(122구)만 보더라도, 정현우의 데뷔전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어렵게 알 수 있다.



정현우는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 KIA의 강력한 타선을 맞아 매 이닝 위기를 겪고도 5회를 버텼다.

이미 4회까지 93개를 던진 정현우는 11-4로 앞선 5회에도 등판했다.

선두타자 변우혁에게 단타, 김태균을 우익수 뜰공으로 잡은 그는 윤도현에게 2루타를 맞고 1사 2, 3루 실점 위기에 몰렸다.

이때 투구 수가 105개로, 신인 데뷔 전임을 고려하면 교체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키움 벤치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정현우는 최원준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데뷔 승리 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1개만 남겼다.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던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



### 이, 오늘 신시내티즌 중견수 예상 배, 2년만 합류... 백업 야수 유력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27일(한국시간) 개막 로스터 26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정후는 루이스 마토스, 엘리엇 라모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와 함께 4명의 개막전 외야수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밖에 헤이든 버드송, 스펜서 비벤스, 카밀로 도발, 조던 힉스, 에릭 밀러, 로비 레이, 란디 로드리게스, 타일러 로저스, 랜던 루프, 루 트리비노,

저스틴 벨랜더, 라이언 워커, 로건 웹(이상 투수), 패트릭 베일리, 샘 허프(이상 포수), 윌리 아다메스, 맷 채프먼, 타일러 피츠제럴드, 윌머 플로레스, 크리스천 코스, 케이시 슈미트, 라몬데 웨이드 주니어(이상 외야수) 등을 개막 로스터에 넣었다.

이달 중순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허리 통증으로 원 이정후가 정상적인 몸 상태를 회복한 이상, 개막 로스터 진입은 기정사실이였다.

이정후는 전날 막을 내린 MLB 시범 경기 최종전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현지 중계방송사 인터뷰에서 "몸 상태는 정말 좋다. 최고의 구단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복귀했으니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 경기 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름다운 오라클 파크에서 나 역시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정후의 올해 시범 경기 최종 성적은 타율 0.250, 2홈런, 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29다.

올 시즌 3번 타자로 자리를 옮긴 이정후는 개막전부터 주전 중견수로 출전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2025 MLB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시범 경기에서 치열하게 생존 투쟁을 벌인 배지환(25·피츠버그 파이리츠)도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됐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포스트가제트 노아 힐스기지는 자신의 트위터에 피츠버그 개막 로스터 26인 명단을 공개했다.

배지환은 백업 외야수 한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잭 스윈스키와 나란히 승선했다.

배지환은 시범 경기 타율 0.381(42타수 16안타), 스윈스키는 타율 0.375(40타수 15

안타) 두 선수는 나란히 시범 경기 팀 내 최다 안타 12위를 차지했다.

배지환은 홈런 1개와 4타점, 3도루를 보태고 팀 내 득점 1위(13개)를 달렸다.

배지환이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건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배지환은 고관절 부상 여파로 부상자 명단에서 개막을 맞이했다.

배지환은 올 시즌 빠른 발과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백업 야수 임무를 소화할 전망이다.

피츠버그는 2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로 2025시즌을 시작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4연승 도전 대전 vs 반전 절실한 광주

팀 창단 이후 1부리그 최다 연승(2007년 5연승) 경신에 도전하는 대전하나시티즌과 이번 시즌 단 1승에 그친 광주FC가 '승점 3'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선두 대전(4승 1패·승점 12)은 29일 오후



### '득점 1위' 대전 주민규 4경기 연속 골 사냥 나서

4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7위 광주(1승 3무 1패·승점 6)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6라운드 홈 경기를 펼친다.

대전은 이번 시즌 초반 가장 무서운 공격

력을 과시하는 팀이다. 개막전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3-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대전은 2라운드에서 '다렌딩 챔피언' 울산 HD에 0-2

로 패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수원FC(1-0승), 대구FC(2-1승), 제주 SK(3-1승)를 잇달아 격파하며 3연승 신바람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대전은 5경기에서 9골(경기당 1.8골)에 4실점(경기당 0.8골)에 그치는 뛰어난 공수 조화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뽐냈다.



2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수원FC의 경기에서 주민규(오른쪽)가 후반 42분 결승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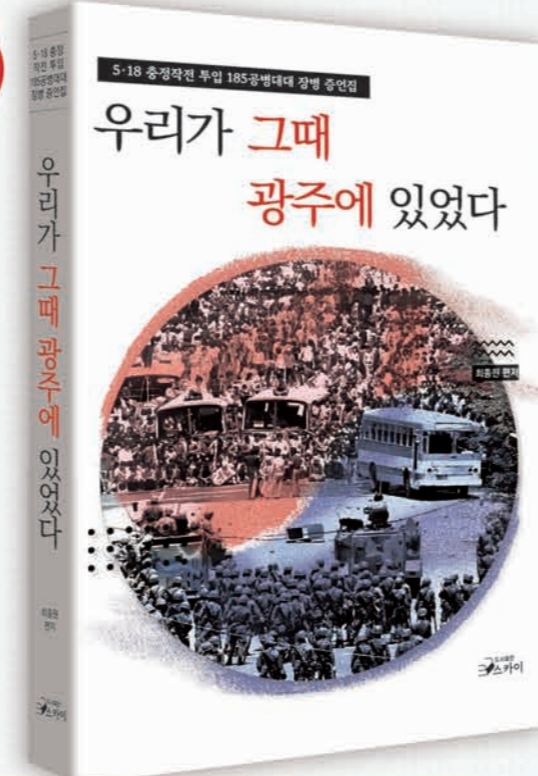
# 국방의무 필하려 입대한 당신의 아들이 학살자로 매도 당한다면... 44년 만에 빛 본 5·18 출동 계엄군의 육필 수기

80년 5·18 충청작전 투입 185공병대대 장병 증언집

## 우리가 그때 광주에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사태 사건 현장에 투입된 185공병대대 장병 73명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심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최종원 편저 | 468쪽 | 25,000원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185공병대대 자필 체험담  
5·18 역사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진실 보고서

"눈알 빠지는 고통 속에 돌아서는데 육중한 것이 등에 가해져 거꾸러졌다. 간신히 일어나 차에 오르려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M16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 185공병대대 참모부 병사 서명 미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최루탄 몇 발뿐이었다. 실탄 없는 총은 동등이 만도 못했다." - 185공병대대 3중대 병장 정철호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자가 만든다" -지만원 박사

도서출판 스킵스 구입 문의 (02)522-6595